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6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상승
- WSJ: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이상 보류할 필요가 없다'
- Bloomberg: 시카고 연준 총재, "CPI 지표는 물가 2%로 향한다는 증거"
- WSJ: 이코노미스트들, "바이든 보다 트럼프 재임 시 인플레이 더 악화된다"

[미국 금융]

- WSJ: 월가 대형 은행들 고금리 압박 받는다
- Reuters: 시티그룹 수익 경중... 특히 투자 बैं킹과 서비스 부문에서
- Bloomberg: 금값 2천4백불 아래로 하락... PPI 지표 예상보다 높아
- CNBC: 어제 미 증시의 '변동 상황'은 오히려 희소식 가능성

[유가]

- CNBC: 미 원유, 인플레이 완화와 재고 감소로 83달러 돌파

[글로벌 경제]

- Bloomberg: 기상이변이 세계 식량 시장 뒤흔든다
- Bloomberg: 중국, 6월 무역 흑자 사상 최고치 ... 무역 전쟁 우려 고조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AT&T "해커, 거의 모든 고객의 통화 및 문자 기록 탈취"
- WSJ: SpaceX, 텍사스에서 실험용로켓 발사 대폭 증가 계획
- CNN Business: 달러 제너럴, 48시간 내 매장 안전 개선 조치 안 하면 큰 벌금형
- CNN Business: 물가고에 스낵 시장, 점점 저렴해진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Producer Inflation Strengthens in June

6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상승

- 오늘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PPI)가 상승했다. 6월의 경우 전년 동월에 비해 2.6% 상승해 지난 2023년 3월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5월에 비해서는 0.2% 상승했다.
- 어제 목요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둔화되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의 문을 열어 놓았는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오히려 상승한 것이다.

- 연준의 향후 회의는 이달 30일부터 양일간 열린다. 고금리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금리가 가을에 인하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WSJ 기사

WSJ: It's Time for the Fed to End the Waiting Game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이상 보류할 필요가 없다'

-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의 둔화로 인해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하를 보류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너무 오래 고금리를 유지할 경우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 금리 인하 기준과 관련해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 상한선으로 내려가고 있다. 목요일에 발표된 6월 핵심 물가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3.3% 상승에 그쳐, 최근 3년간의 최저 증가 속도를 기록했다.
- 파월 의장의 의회 출석 발언처럼, 노동 시장도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 동인이 제거되어 경제 하방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 소비자들의 지갑도 계속 닫혀있는 상황이고 회사들의 높은 차입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다행스러운 소식은 연준이 현재부터 9월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 관련하여 비둘기파적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WSJ 기사

Bloomberg: CPI Data Are Evidence Inflation on 2% Path, Fed's Goolsbee Says

시카고 연준 총재, "CPI 지표는 물가 2%로 향한다는 증거"

- 시카고 연준 총재인 Austan Goolsbees는 최근의 물가 지표는 매우 양호하다면서 물가가 2% 금리 목표 선상에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 그러나 그는 첫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주거 비용 인플레이션 하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지난 수개월간 해당 지표가 매우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할 때 주거비 인플레이션 지표를 면밀히 관찰해 왔다.
- 그는 "물가가 2% 선상에 있다는 보다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까지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없다"며 "내 견해로는 2%로 향하는 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WSJ: Economists Say Inflation Would Be Worse Under Trump Than Biden**이코노미스트들, “바이든 보다 트럼프 재임 시 인플레 더 악화된다”**

-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바이든 보다 트럼프의 재임 기간에 인플레, 정 부 적자, 금리 등이 더 늘어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분 기별 예상 설문에 따른 것이다.
- 지난 7월 5일부터 5일간 실시된 설문 결과 50명의 응답자 중에 56%가 바 이든 대통령 될 때 보다 트럼프 재임 시에 인플레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답 했다. 단지 16%만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는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트럼프가 재임할 경우 관세 인상과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 강화가 물가 압력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들은 말했다.
- 한편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미 GDP 성장률을 작년의 3.1% 보나 낮은 1.7%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12개월간 침체 가능성도 28%로 보았다. 이같은 성장률과 침체 가능성은 지난 4월 설문 조사와 같았다.

WSJ 기사

[미국 금융]**WSJ: Big Banks Continue to Feel Pressure From Higher Rates****월가 대형 은행들 고금리 압박 받는다**

- 요약: JP모건과 웰스 파고는 수익이 줄어든 반면, 시티그룹은 비용 절감 조 치로 수익이 상승했다.
- 고금리가 미 대형 은행 일부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으며, 대출 상황을 보면 ‘소비자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JP모건과 웰스 파고는 오늘 금요일 발표에서 각각 분기별 수익 감소를 보 고 했다. JP모건의 2분기 수익은 연간 9% 감소한 1백31억불. 웰스 파고는 작년과 비교해 2분기 수익이 1% 줄어든 4백91억불. 반면에 시티그룹은 비 용 절감 조치를 통해 수익이 늘었다. 작년보다 순수입이 10% 늘어난 2백1 억4천만불. 그러나 크레딧 카드 사업의 잠재적인 손실에 대비해 많은 충담 금을 적립했다.

WSJ 기사

FinanceYahoo: Citi profit beats on surge in investment banking, services strength**시티그룹 수익 경증... 특히 투자 뱅킹과 서비스 부문에서**

- 시티그룹은 2분기 수익이 상승하여 월가의 기대치를 상회했다. 특히 투자 뱅킹 매출과 서비스 분야에서 60% 상승했다.
-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이 은행은 지난 6월 30일에 끝나는 2분기 수익이 주당 1달러 52센트를 기록했다. 이는 분석가들의 예상치인 1달러 39센트를 상회하는 것이다.
- 이러한 희소식은 실적 발표 이틀 전에 미 규제 당국이 2020년에 확인된 이 은행의 데이터 관리 문제의 해결에 “불충분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벌금 1억3천6백만 불을 부과한 후 나온 것이다.

Reuters 기사

Bloomberg: Gold Drops Below \$2,400 as Producer Prices Rise Above Forecast**금값 2천4백불 아래로 하락... PPI 지표 예상보다 높아**

- 오늘 발표된 미 생산자 물가지수가 상승해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금값이 온스당 2천4불 아래로 떨어졌다.
- 목요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 2021년 이래 가장 둔화되었다는 소식에 1.9% 상승했으나 오늘 금요일에는 1% 하락 중이다.
- 일반적으로 기업의 차입 비용인 금리가 낮을 경우 상대적으로 금값이 상승한다.
- 한편 금값은 고금리와 높은 인플레이에도 불구하고 올해 16%나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CNBC: Thursday was a historically strange day in the stock market. That may be good news**어제 미 증시의 '변동 상황'은 오히려 희소식 가능성**

- 어제 목요일 증시는 종목 그룹 간에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 그동안 크게 부진했던 작은 종목들인 러셀 2000지수는 3% 이상 뛰었으나 빅테크들은 고전한 날이었다.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는 하락했다.

- ‘매그니피센트 7’에 속한 엔비디아는 5% 이상, 애플은 2.3% 이상 떨어졌다.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같은 반전을 증시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 그동안 빅테크 중심으로 특정 종목만 랠리를 거듭해 증시 종목의 전반적인 상승 폭이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 Yardeni Research의 Ed Yardeni는 “이날은 투자자들이 빅테크7 종목에서 벗어나 나머지 종목으로 이동한 날이다. 앞으로 S&P 500 하락하지는 않겠지만 나머지 종목인 이른바 ‘S&P 493’과 중소 종목들의 상승세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CNBC 기사

[유가]

CNBC: U.S. crude oil rises for third day, tops \$83 per barrel after inflation eases, inventories fall

미 원유, 인플레이션 완화와 재고 감소로 83달러 돌파

- 금요일 미 원유 가격은 소비자 물가가 완화되고 재고가 감소하면서 1% 상승하여 배럴당 83달러를 돌파했다.
- 최근의 유가 랠리는 4주 연속 상승한 후, 이번 주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0.38% 상승에 그치며 보합세를 보였다.
- 그러나 6월 인플레이션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완화되면서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 원유는 이번 주말에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CNBC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Extreme Weather Is Shaking Up Global Food Markets Again 기상이변이 세계 식량 시장 뒤흔든다

- 이번 주에는 날씨가 식량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 비싼 커피: 브라질의 가뭄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생산량 감소로 커피 가격이 급등했다. 아라비카 커피 선물 가격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초콜릿 인플레이션: 서아프리카의 악천후로 코코아 수확량이 감소하면서 초콜릿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초콜릿 제조업체들은 비축된 원두를

활용하여 지금까지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었지만, 새로운 공급을 확보하는 데 더 큰 비용이 들 경우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 **곡물 전망:** 기상이변이 일부 작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 일부 지역에 비를 가져다준 허리케인 베릴 덕분에 옥수수과 대두 선물 가격은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폭우로 밀 수확량이 15% 감소하여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북아프리카와 중동으로의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
- **중국의 위협:** 가뭄, 홍수, 태풍을 동반한 더운 여름 날씨가 중국의 농작물 수확을 위협하고 있다. 밀, 콩, 쌀, 옥수수의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식량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수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China's Record Trade Surplus Risks Further Straining Ties 중국, 6월 무역 흑자 사상 최고치 ... 무역 전쟁 우려 고조

- 지난달 중국의 무역 흑자는 수출이 급증하고 수입이 예상 외로 감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은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 금요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6월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하여 거의 2년 만에 최고치인 3천8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2천90억 달러로 감소하여 6월 무역 흑자는 990억 달러에 달했다.
- 이러한 불균형은 중국의 무역 파트너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이들은 전기차를 포함한 중국산 수입품에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이번 주 유럽연합과 베이징이 상호 보복 조사를 시작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임박한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장즈웨이(Zhiwei Zhang) Pinpoint Asset Management 대표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흑자는 내수가 약하고 수출에 의존하는 생산 능력이 강한 중국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 호조의 지속 가능성은 하반기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라며 “미국 경제가 약화되고 있고 무역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BC: AT&T says hackers stole records of nearly all cell customers' calls and texts
AT&T "해커, 거의 모든 고객의 통화 및 문자 기록 탈취"

- 금요일 AT&T 셀룰러 네트워크는 해커들이 거의 모든 고객의 6개월 치 통화 및 문자 메시지 기록을 훔쳤다고 밝혔다. 이는 수백만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는 심각한 유출 사건이다.
- 회사는 SEC(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내부 조사를 통해 지난 4월에 해커들이 제 3자 클라우드 플랫폼에 저장된 AT&T 통화 기록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복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 유출된 데이터에는 2022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와 2023년 1월 2일 당일의 통화 및 문자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통화 및 메시지 내용은 유출되지 않았으며 고객의 개인 정보에도 접근하지 않았지만, 기록에는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정보는 흔히 '메타데이터'라고 불리며, 대규모로 수집 및 분석되어 통화 패턴과 사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사용될 경우 매우 민감한 정보로 간주된다.

CNBC 기사

WSJ: SpaceX Presses to Launch Massive Rockets From Texas More Often

SpaceX, 텍사스에서 실험용로켓 발사 대폭 증가 계획

- SpaceX는 새로운 발사체가 설계대로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텍사스에서의 로켓 발사를 대폭 늘리려 하고 있다.
- 미 연방 항공청에 따르면, SpaceX는 텍사스 브라운스빌 동쪽의 복합 단지에서 연간 최대 25회 스타십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현재 SpaceX는 2022년에 승인된 계획에 따라 이곳에서 최대 5번의 궤도 비행 허가를 받은 상태다.
- 발사대에서 높이가 거의 400피트에 달하는 스타십은 달 표면에 우주비행사를 다시 보내려는 NASA의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회사는 자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사업을 포함한 위성 배치에 스타십을 사용할 계획이다. SpaceX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언젠가 이 우주선을 이용해 사람들을 화성에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WSJ 기사

CNN Business: Dollar General has 48 hours to make its stores safer or it will face big fines

달러 제너럴, 48시간 내 매장 안전 개선 조치 안 하면 큰 벌금형

- 달러 제너럴은 저임금 근로자를 위험한 작업 환경에 장기간 노출시킨 혐의로, 노동부와의 합의를 통해 매장 내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고 1천2백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 지난 10년간 수십 명의 달러 제너럴 직원과 고객이 매장에서 사망했으며, 회사는 안전하지 않은 매장 환경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항의와 규제 당국으

로부터의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 노동부는 달러 제너럴이 새로운 안전 관리자를 고용하고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 교육을 제공하며, 안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매장 내 상품 진열 수준을 줄여 비상구가 막히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 이번 합의에 따라 달러 제너럴은 48시간 이내에 출구, 소화기 및 전기 패널과 관련된 모든 안전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하며, 위반 건당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CNN Business 기사

CNN Business: Snacks are getting cheaper as Americans tire of high prices

물가고에 스낵 시장, 점점 저렴해진다

- 어제 목요일에 펩시코의 스낵 부문 프리토레이(Frito-Lay)는 여러 분기 동안 가격을 인상한 후, 2분기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수년간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계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다”며 “스낵을 포함한 많은 식품 카테고리의 실적이 저조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치토스, 레이즈, 도리토스 등의 브랜드 운영 비용 절감과 프로모션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었음에도 미국 소비자들은 여전히 스낵과 같은 일상적인 제품의 가격 상승 여파를 느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제품 크기를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스낵 구매자들은 구매량을 줄이거나 개인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 최근 몇 달 동안 주요 소매업체들은 가격 인하를 발표했다. 소비자들이 소비에 더욱 신중해짐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수 있다. 연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6월 감자칩의 평균 가격은 6.56달러였으며, 팬데믹이 시작되던 2020년 6월의 평균 가격은 5.09달러였다.
- 펩시코의 라몬 라과르타(Ramon Laguarta) 회장 겸 CEO는 투자자들과의 통화에서 “지난 3, 4년간의 인플레이션을 겪은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돌려줘야 할 때”라며 “특정 제품은 가치를 재조정해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CNN Business 기사

미국 소비자물가 진정되니... '연내 3차례 금리 인하' 기대 부상

9·11·12월 연속 인하 거론... "이달 인하 배제 말아야" 주장도
달러가치 및 미국채 금리 하락... 증시 약세 속 중소형주·부동산주는 올라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전망보다 낮게 나오는 등 인플레이션이 진정세를 보이자 미 기준금리가 올해 3차례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6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하고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 시장 전망치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미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가 하락했으며, 원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 가치는 상승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